

2019 가족주일

가족은 서로를 보듬는 '품'의 공동체입니다.

1. 공간, 시간

오늘 나의 행복은 '현재형'이다. 생명은 '현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내가 실존하는 시간과 공간의 '질'이 행복이다. 이에 대한 예가 에덴동산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에 두셨다.

[창세기 2:8]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아담이 살고 있는 에덴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하나님이 아담의 행복을 위해 지으신 실재적인 시,공간의 장소였다. 그래서 에덴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다. 에덴 안에서 아담은 아담일 수 있었다. 에덴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실재적 사랑이다.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으로 '내 자신' 보다 더 가치있는 존재가 마음안에 착상되는 순간을 말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공간이 바로 '에덴'이다. 에덴안에 복, 기쁨, 풍요함, 충만함이 있었다. 에덴은 아담이 살았던 물리적 시,공간이지만 그 곳은 아담의 삶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오늘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시,공간에 대한 깊은 질문이 필요한 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2. 삶, 하나님 그리고 공간

오늘의 삶을 살고있는 나에게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 만드신 '에덴'이라는 시,공간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에덴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곳을 말한다.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공간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 그 장소에서 인식되는 하나님의 실존이 바로 '믿음'의 레벨이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일 수 없는 이유는 '에덴'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의 일방적 범죄로 에덴을 잃었다. 에덴을 폐쇄시키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 에덴을 지키고 계신다. 그 공간을 벗어난 인간은 그 때부터 불행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향한 에덴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음을 알려주셨다.

그 예가 바로 '탕자의 비유'이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방탕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와 함께있던 첫째 아들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공간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다. 돌아온 탕자는 그것을 깨달았고, 깨닫지 못했던 첫째 아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신다.

3. 가족 - 품

다시 말하면 '가족'임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 (장소-하마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는 것이다. 가족이 만드는 공간의 능력이 마치 사람이 처음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에덴'과 같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 예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이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삶은 처참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정죄했다. 이것이 에덴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이 기막힌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담의 불행을 보여주신다. 에덴을 잃은 아담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신다.

[누가복음 15:19, 21]

19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21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장면이 일어난다. 돈과 권력이 만드는 공간이 없어진 탕자의 삶은 처참했다. 자신의 힘과 재력으로 만든 공간이 행복한지 알았는데, 그곳은 일시적 시한부적 행복만을 주는 공간이었다. 이런 그가 깨달았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탕자의 위대함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 아름다운 회복의 돌이킴이 '회개'이다. 그래서 회개는 승리이다. 강력하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달려와 탕자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다. 아버지의 다가섬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기다리지 않고 달려 오셨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품안으로 탕자를 품으셨다. 아버지가 탕자를 껴안으며 만든 그 작은 공간이 '에덴'이다. 탕자의 모든 권리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실재적 시,공간이다. 입 맞추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에게 행하는 표현이다. 탕자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아담을 위한 에덴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 만드신 공간은 일방적 은총의 공간이다.

[누가복음 15:20]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누가복음 15:22-24]

22~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의 '품'이라는 공간에서 탕자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아버지의 '품'이라는 공간에서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다. 가족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가 만드신 에덴과 같은 아버지의 품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사람은 진짜 행복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4. '품'의 회복

성경에 보니 이와 같은 아버지의 품이 '주의 날개'로 표현되어 있다.

[시편 17:8]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시편 61:4]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의 의미는 '보호'를 말한다. 보호는 사랑의 실재이다. 생명이 엄마의 태에서 착상된다. 그 아기는 엄마의 모든 것이다. 아기는 엄마의 태라는 공간에서 보호된다. 그래서 보호는 사랑의 실재가 된다. 아기는 엄마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리고 아기는 그 때부터 엄마의 전부가 된다.

날개는 히브리어로 '카나프'이다. 다른 의미로는 '옷자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스라엘 결혼 관습을 보면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하여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는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보호와 능력을 말한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는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안에 있다. 그곳이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에덴과 같은 공간이다.

'가족'이라 함은 이 놀라운 축복의 '품'을 만드는 것이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기는 공간을 그 어떤 가치와도 바꾸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제 그 사랑의 품으로 서로를 덮자. 아버지의 품을 우리 안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회복하자.